

품사 통용의 감탄사 처리 방안 연구

김문기(경성대)

〈 차 례 〉

1. 머리말
 2. 감탄사의 범주적 특성에 따른 품사 설정의 문제점
 3. 품사 통용의 감탄사 처리를 위한 제언
 4. 맺음말
-

【벼리】 이 글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감탄사 중 명사, 대명사, 관형사, 부사로도 쓰이는 품사 통용의 감탄사를 대상으로 그 목록과 뜻풀이, 용례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형태·통사·의미적인 문법 범주로서의 감탄사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사전에서 감탄사를 설정할 때 형태·통사·의미론적 단위와 화용론적인 단위의 층위 구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보았다. 즉, 사전에서 감탄사로 등재한 단어들의 뜻풀이와 용례를 살펴보면, 이들을 감탄사가 아닌 다른 품사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화용론적인 단위로서의 감탄사는 절이나 문장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고 보아 감탄사라는 품사 범주로 설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을 논의하였다.

* 주제어 : 감탄사, 사전, 문법 범주, 품사 분류, 품사 통용, 통사론적 단위, 화용론적 단위, 층위, 뜻풀이, 소형문

1. 머리말

기존의 문법 체계나 사전에서는 형태·통사·의미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감탄사라는 품사를 설정해 왔다.¹⁾ 이 글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에 감탄사로 등재되어 있는 단어들의 문법적 특성을 고찰하여, 그것의 문법 범주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국어 문법에서 효율적인지를 살펴보려 한다.

문장도 일반적으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의 5가지로 분류한다. 그런데 감탄문을 평서문에 포함시키거나, 청유문을 명령문에 포함시키기도 하면서 달리 분류하기도 한다.²⁾ 이때 감탄문을 평서문에 포함시키는 것은 평서문이 특정한 상황에 실현될 때 감탄문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본다면, 품사에서도 감탄사를 설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감탄사는 전영옥(2009:246~7, 270~1)에서 밝힌 것처럼 구어적인 특성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곧 감탄사는 어떤 단어를 특정한 상황에서 화용론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통사론적 단위라기보다는 화용론적인 단위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 『표준』에 제시되어 있는 감탄사의 목록을 조사하여, 그 뜻풀이와 예문을 통해 그 문법 범주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이면 (1)과 같다.

- (1) ㄱ. 가동가동 ㄹ 어린아이의 겨드랑이를 치켜들고 올렸다 내렸다 하며
어를 때에, 아이가 자꾸 다리를 오그렸다 폈다 하는 모양.

1) 품사란 단어의 부류를 말하므로, 일반적으로 단어의 형태·통사·의미적 특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이후부터 편의상 ‘통사론적’ 특성이라 하기로 한다.) 그런데 감탄사는 화용론적인 특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품사 분류의 기준에 따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감탄사를 품사의 하나로 설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함을 밝혀 둔다.

2) 이는 ‘감탄’, ‘감탄사’, ‘감탄문’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㉞ 어린아이의 겨드랑이를 치켜들고 올렸다 내렸다 하며
어를 때 하는 소리.

ㄴ. 참01 ㉞①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것. ② 이치 논리
에서, 진릿값의 하나. 명제가 진리인 것을 이른다.

㉞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과연.

㉞① 잊고 있었거나 별생각 없이 지내던 것이 문득 생각날 때
내는 소리. ② 매우 딱하거나 어이가 없을 때 내는 소리.

ㄷ. 가만 ㉞① 움직이지 않거나 아무 말 없이. ② 어떤 대책을 세우거나
손을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③ 마음을 가다듬어 곰곰이. ④
말없이 찬찬히.

㉞ 남의 말이나 행동을 막을 때 쓰는 말.

ㄹ. 엇드려봐 ㉞① 엇드려서 சொ라는 구령. 또는 그 구령에 따라 행하는
동작.

(1ㄱ)의 ‘가동가동’은 특정 상황에서 내는 소리라는 점에서, 의성어로서
부사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1ㄴ)의 ‘참01’은 명사나 부사로 쓰이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감탄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부사로서 화자의 심리
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양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로 처리할 수
있다.³⁾ (1ㄷ)의 ‘가만’ 역시 특정 상황에서 쓰는 말인데, ‘가만, 내 말 좀 들어
봐.’라는 예문에서 보듯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문장으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1ㄹ)의 ‘엇드려봐’는 특정 문장 성분이 생략된 하나
의 완전한 문장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처럼 기존에 감탄사로 분류된 단어들의 뜻풀이와 예문을 볼 때, 감탄사
를 감탄사가 아닌 다른 품사나 문법적 단위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즉, 명사, 대명사, 부사, 문장 등으로 처리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가
운데 부사는 상징 부사, 양태 부사 등으로, 문장은 완전한 문장과 작은 문장
(불완전한 문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3) ‘참01’이 실현될 때 후행 문장이 실현되어야 그 의미가 명확해지고 후행 문장 전체를 수식
하는 기능도 함께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태 부사로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표준』에서 감탄사로 등재한 표제어들의 뜻풀이와 예문들을 살펴서 이들을 품사 범주로 설정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품사로 처리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문법 범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감탄사의 범주적 특성에 따른 품사 설정의 문제점

먼저 ‘감탄’과 ‘감탄사’의 개념을 『표준』에서는 (2)처럼 제시하였다.

- (2) ㄱ. 감탄(感歎/感嘆) : 마음속 깊이 느끼어 탄복함.
 ㄴ. 감탄사(感歎詞) : 품사의 하나. 말하는 이의 본능적인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따위를 나타내는 말의 부류이다.

(2)를 통해 ‘감탄’과 ‘감탄사’의 ‘감탄’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한자는 모두 같은데도, 이들의 의미가 서로 다르게 풀이되어 있다는 점에서, 감탄사라는 용어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3) ㄱ. 아, 굉장하다.
 ㄴ. 아, 깜짝이야.
 ㄷ. 아, 슬프다.
 ㄹ. 아, 아쉽다.
 ㅁ. 아, 이것밖에 안 남았네.

(3)에는 모두 동일한 형태의 감탄사 ‘아’가 쓰였다. 그러나 형태가 같다고 해서 모두 같은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으므로, 결국 그 의미는 특정 상황에서 쓰임으로써 드러나는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이처럼 형태가 감탄사라는 단어의 품사를 결정하는 1차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렇다

면 감탄사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덧붙여 고등 학교 『문법』 교과서에 나타난 감탄사의 개념과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

- (4)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는 아래의 ‘여보, 아, 네’처럼 부름, 대답, 느낌 등을 나타내는 데 쓰이면서, 다른 성분들에 비하여 비교적 독립성이 있는 말들이 있다. 이를 감탄사(感歎詞)라고 한다. 감탄사는 문장 속의 다른 성분에 얹매이지 않고 독립성이 있으므로 독립언(獨立言)이라고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0:107)

이를 통해 본다면, 감탄사는 부름, 대답, 느낌 등의 의미 기능을 하면서 독립성이 있는 단어라는 것이다. 그런데 부름, 대답, 느낌 등은 단어 그 자체가 나타내는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단어를 특정 상황에서 발화했을 때 나타나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보01’의 경우를 보자.

- (5) ㄱ. 어른이, 가까이 있는 자기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
 ㄴ. 부부 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부르는 말.

그런데 이 뜻풀이는 ‘여보게’, ‘여보게나’, ‘여보세요’, ‘여보셔요’, ‘여보쇼’, ‘여보시게’, ‘여보십시오’, ‘여보아라’, ‘여봅시오’, ‘여봐’, ‘여봐라’, ‘여봐요’ 등과 같은 단어들과의 관련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들 중에는 형태적으로 ‘여보’에 ‘-시어요, -십시오, -아라, -시오’ 등이 결합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모두 감탄사로 보기 곤란하다. 더구나 『표준』에서는

4) 학교 문법에서의 감탄사 처리를 살펴보는 이유는, 규범 문법으로서의 특성 때문이다. 먼저 규범 문법은 그 특성상 폐쇄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성립 과정에서는 여러 문법 이론들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개방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규범 문법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언어생활의 바탕(기준)이 되어 언중이 바른 언어생활을 하도록 이끈다는 점 때문이다.

‘여보01’을 감탄사로만 처리했는데, 이러한 형태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여보 01’은 오히려 체언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여보01’을 감탄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표준』에서는 ‘고모부, 고모할머니, 고모할아버지, 빙모님, 외숙부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큰형, 할머니, 할머님, 할아버님, 할아버지, 형수님’ 등처럼 친족 관계에 있는 대상에 대한 호칭을 모두 명사와 감탄사로 함께 쓰이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여기서 ‘할머니 : 할머님’, ‘할아버지 : 할아버님’의 관계를 볼 때, 충분히 ‘외할머니 : 외할머님’, ‘외할아버지 : 외할아버님’, ‘형수 : 형수님’ 등처럼 온전하게 짝을 이루어야 이들 단어에 대한 일관된 분류 기준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외할머님, 외할아버님, 형수’ 등은 감탄사로는 쓰이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음을 볼 때, 역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들은 결국 품사로서의 감탄사를 분류할 때, 형태·기능·의미라는 기준 외에, 화용적인 쓰임을 함께 적용시켰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감탄사는 품사로서의 지위를 갖춘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실제 상황에서 쓰인 말로서의 지위를 갖춘 것이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교사용 지도서 『문법』에서 감탄사를 지도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6) 원칙적으로 감탄사는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는다. 또한 말하는 이의 놀람, 느낌을 나타내는 경우와 동물을 부르는 소리나 단순 말버릇이나 아무 뜻없는 더듬거림 등은 감탄사에 해당하지만, 문장의 머리에 놓인 제시어나 표제어는 감탄사가 아니다. 그리고 “길동아!”와 같이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 또한 감탄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교육인적자원부 2010:144)

물론 감탄사를 품사의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교수·학습하기 위해서는 (6)과 같은 제약을 두어서 다른 품사와의 차이를 두어야 한다. 그렇지만 쓰

임으로서의 말이 먼저인가 규칙으로서의 문법이 먼저인가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설명은 규칙으로서의 문법에 가깝다. 결국 감탄사도 실제 발화 상황에서의 쓰임이 먼저이고, 그것을 규칙화하기 위해 재단한 것이 품사로서의 감탄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감탄사는 다른 품사들과는 달리, 문장이나 상황을 떠나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말이라는 점으로 볼 때, 일반적인 단어와 같이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단어는 최소 자립 형식으로서,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문법적 단위이다. 그런데 감탄사는 단어로서의 자격을 주기에는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단어들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형태적으로는 동일한 감탄사라 하더라도, 입말에서 여러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유동적이다. 즉, 특정 감탄사의 의미 기능이 완전히 고정되지 않고, 입말에서 그것이 쓰이는 상황에 따라 의미가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6)과 같은 제약으로 감탄사의 문법적인 특성을 충분히 제시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이게 된다.

그리고 감탄사의 ‘독립성’은 통사론적인 측면에서의 독립성이다. 그런데 그 의미에 있어서는 독립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7) ㄱ.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군.
- ㄴ. 아, 그때 왜 그랬을까?
- ㄷ. 아, 도대체 너 왜 이러니?

(7)에서 동일한 형태의 감탄사 ‘아’는 (7ㄱ)에서는 ‘놀람’, (7ㄴ)에서는 ‘후회’, (7ㄷ)에서는 ‘탄탄함’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는 결국 뒤의 문장 또는 상황에 의해 그 의미가 결정됨을 보여 준다. 따라서 문장이나 상황과 완전히 분리한다면 그 의미를 확정하여 설명하기 곤란하다. 이는 보조 용언의 경우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 (8) ㄱ. 나는 볼펜을 버렸다.
 ㄴ. 나는 볼펜을 버려 버렸다.

(8ㄱ)에 비해서 (8ㄴ)은 발화 상황을 전제해야 보조 용언 ‘버리다’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즉, ‘볼펜’이 화자에게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 것인가에 따라서 ‘버리다’의 의미가 ‘만족’이 될 수도 있고 ‘불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감탄사 역시 같은 형태의 감탄사가 쓰였다 하더라도, 상황과 대상, 상대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신지연(2001:243~248)에서는 감탄사의 범주적 특징으로, ‘구문적 독립성’과 ‘언어 경계적 특성’을 언급하였다. 구문적 독립성은 그 자체로 완결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소형 발화로서의 특성을 지닌다는 것으로, 언어 경계적 특성은 자연 언어의 언어화, 규약화(conventionalized)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결국 감탄사라는 문법 범주는 품사 범주로서라기보다는 사용상의 상황을 전제로 한 특성에 의해 설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허재영(2001:68, 71~89)에서는 감탄사를 ‘감정 감탄사, 의지 감탄사, 운율 감탄사’로 분류하여 각각의 종류, 특징, 발달 과정을 논의하였다. 이는 감탄사가 나타내는 의미 기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의미 기능은 단어 자체가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역시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의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감정 감탄사와 의지 감탄사를 화자의 감정, 의지와 관련된 독립된 하나의 어휘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감탄사는 특정 상황에서의 쓰임을 전제로 하므로, 담화 표지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임규홍(1996:3~4)에서는 담화 표지를 문장 성분상 독립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고 하여, 쓰인 말로서의 층위에서, 곧 화용론적 층위에서 그 독립성을 파악한 것이다. 이것은 결국 통사론적 층위와 화용론적 층위를 구분하여 품사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규홍(1996:4)에서는 담화 표지의 특성을 제시하면서, 임규홍(1996:4~5)에서는 국어의 담화 표

지를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였다.

(9) ㄱ. 어휘적 담화 표지

- ㉠ 반복 정보 담화 표지: 앞 담화의 성분을 반복
- ㉡ 어휘 담화 표지: 뭐냐하면, 말하자면, 뭐고하면, 말이야, 인자, 가지고, 머시고, 말입니다, 아이가, 그 아인나, 거시기, -요, 마, 참, 글썄

ㄴ. 비어휘적 담화 표지

- ㉢ 지시어 담화 표지: 예-, 이-, 그-, 저-, 예-, 아-, 음-
- ㉣ 감탄사 담화 표지: 오!, 아뽀싸!, 야!, 아이고!
- ㉤ 초분절음 담화 표지: 씬, 억양, 강세

감탄사는 (9ㄱ)과 (9ㄴ)에 모두 해당되는데, 주로 (9ㄴ)에 해당된다. 이것은 감탄사를 하나의 어휘로 파악하기보다는 특정한 상황에서 그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감탄사를 단어로 파악하는 관점보다는 특정 상황에서 구현되는 담화 표지로서 쓰인 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허재영(2001:91~93)에서는 이한규(1996, 1997)의 ‘그래’와 ‘왜’의 논의를 받아들여, 담화 표지가 어휘화되어 감탄사로서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전영옥(2002:118)에서는 중요한 담화 표지의 특징 중 하나로 원래의 어휘 의미에서 출발하였지만 그 어휘의 명제 의미가 약화·상실되었으며, 통사적으로 다른 성분과 독립적이라는 것을 들었다. 이에 따른 담화 기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10) ㄱ. 실현 환경: 구어 담화에서 실현

- ㄴ. 실현 형식: 여러 언어 형식(감탄사, 부사, 구절 등)이 담화 표지로 사용
- ㄷ. 운율적 특징: 억양, 휴지와 관련
- ㄹ. 형태적 특징: 형태적으로 고정성이 높다.

- ㄱ. 통사적 특징: 문장의 다른 성분에 독립적. 필수 성분 아님.
- ㄴ. 의미적 특징: 어휘의 명제적 의미에서 변이
- ㄷ. 화용적 특징: 다양한 담화 기능 수행

(10ㄴ)에서처럼 본래 어휘의 의미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은, 결국 특정 상황에서 어휘적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통사적으로 다른 성분과의 관련성을 맺지 못한다는 의미라 볼 수 있다.

김문기(2010:22)에서는 감탄사를 양태 기능의 부사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실제 『표준』에 실린 품사 통용처럼 처리된 감탄사 목록을 보면, 이들을 모두 양태 기능의 부사에 포함시키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감탄사의 품사 설정은 일반적인 품사 범주의 설정 기준인 형태, 기능, 의미와는 다른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곧 감탄사라는 문법 범주의 특성상, 기존에 감탄사로 설정한 단어들은 입말로서의 특성 때문에 담화 표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므로 통사론적 층위에서만 품사 분류해서는 곤란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통사론적 층위에 포함시킨 기존의 감탄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여러 품사로 통용되는 감탄사들을 통사론적 단위로서만 처리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는 관점에서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감탄사는 통사론적 층위와 화용론적 층위로 나누어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할 것이다. 즉, 감탄사 중에는 통사론적 단위로 처리할 수 있는 것과 화용론적 단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으므로, 이를 나누어서 구분해 주는 것이 통사론과 화용론의 경계를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먼저 『표준』에 감탄사로도 쓰이고 다른 품사로도 쓰이는 감탄사들의 목록을 바탕으로, 그 예문들을 함께 살펴보겠다.

3. 품사 통용의 감탄사 처리에 대한 제언

여기에서는 감탄사를 통사론적인 측면에서 처리하여 다른 『표준』의 표제어 선정 기준과 그 뜻풀이를 살펴보면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⁵⁾

먼저 감탄사로만 쓰이는 표제어들의 뜻풀이를 보면 대부분 ‘~ 소리’, ‘~때 쓰는 말’ 등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상의 상황을 전제로 해야 그 문법적인 특성을 충분히 밝힐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감탄사로만 쓰이는 단어들은 문법적 층위를 달리해서 그 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품사 통용처럼 처리되어 있는 표제어들은 이보다는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얹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하나의 문법 단위가 서로 다른 문법적 층위에서 처리함으로써 혼선을 빚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사전에서 형태·통사·의미적 단위로서의 감탄사와, 화용적 단위로서의 감탄사를 구분하지 않고 처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표준』에서 명사, 대명사, 관형사, 부사로도 쓰이며 감탄사로도 쓰이는, 품사 통용처럼 처리되어 있는 감탄사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살펴보려 한다.

3.1.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감탄사 처리

여기에서는 『표준』에서 감탄사로 처리한 표제어 가운데, 여러 품사로 통용되는 것으로 처리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

-
- 5) 여기에서는 『표준』만을 대상 자료로 삼았는데, 이것은 『표준』이 기존 사전을 망라했다는 점과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이 글의 목적이 사전마다 감탄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도 있다.
- 6) 감탄사만으로 설정된 표제어들은 이 글의 관점에서 그 범주를 설정하는 데 자세히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표준』에는 감탄사 설정의 기준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러므로 표제어들로 선정된 목록과 뜻풀이, 예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감탄사에 대한 앞선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의 제약 또한 컸음을 밝혀 둔다.

(11) 『표준』에 등재된 다른 품사와 통용되는 감탄사의 수⁷⁾

구분	명사	대명사	관형사	부사	합계
ㄱ	13	1	1	5	20
ㄴ	2	0	0	0	2
ㄷ	4	0	0	0	4
ㄹ	0	0	0	0	0
ㄱ	5	3	0	0	8
ㅅ	8	0	0	1	9
ㅈ	11	0	0	0	11
ㅇ	29	1	0	13	43
ㅈ	23	0	0	2	25
ㅊ	5	0	0	2	7
ㅋ	9	0	0	2	11
ㅌ	0	0	0	0	0
ㅍ	2	0	0	0	2
ㅎ	7	0	0	0	7
합계	118	5	1	25	149

위 표에서 보듯이 『표준』에서는 감탄사를 명사, 대명사, 관형사, 부사와 통용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물론 『표준』에서는 왜 이렇게 분류를 했는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본다면 감탄사는 명사, 대명사, 관형사, 부사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11)에서 보인 품사 통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이면 (12)와 같다.

- (12) ㄱ. 명사: 거총, 걸어총, 걸음마, 검사총, 경례, 고모부, 고모할머니, 고모할아버지, 고수레02, 기립, 기준03, 까짓것, 꽃아칼, 나무아미타불, 니나노, 도리도리, 뒤로돌아, 뒤로돌아가, 뛰어가, 만세04,

7) 이 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김문기(2010:10)를 참조하되, 이 글에서 대상으로 삼은 항목만을 남겨 두었다. 이 표에서는 자료를 재검토하여 명사 ‘ㅇ’ 항목에서 -1, ‘ㅈ’ 항목에서 -1, 부사 ‘ㅇ’ 항목에서 +1로 수정하였다. 참고로 감탄사로만 처리된 표제어는 443개이다.

멍군, 모여, 무릎썉, 무릎앉아, 바로02, 바른걸음으로가, 반걸음으로가, 받들어충, 번호02, 부라부라, 부바, 빙모님, 새아가, 서04, 서서썉, 세워충, 쉬02, 쉬아01, 쉬어, 쉬엣, 싸구려, 쏘아, 썉02, 아가01, 아이스케키⁸⁾, 안녕, 앓아, 앓아썉, 앞에충, 앞으로가, 앞으로나란히, 액션(action), 어깨충, 어부바, 어비01, 옆드려뻥쳐, 옆드려썉, 예비, 열중쉬어, 오버(over), 외숙부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우로나란히, 우로봐, 우로어깨충, 우향앞으로가, 우향우, 유유(唯唯), 응가, 이모부, 일어서,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작은올케, 작은할머니, 작은할아버지, 잘코사니, 장군05(將軍), 장모님, 장인어른, 정말01, 제자리에서, 좌로어깨충, 좌향앞으로가, 좌향좌, 죄암죄암, 죄짐, 주목(注目), 귀엄귀엄, 지어충, 지화자, 질부(姪婦), 짹짹공공, 쭈쭈, 차려, 차렷, 착석, 참01, 참말, 컷(cut), 큰아버지, 큰어머니, 큰언니, 큰오빠, 큰올케, 큰할머니, 큰할아버지, 큰형, 편히쉬어, 편히앉아, 할머니, 할머님, 할아버님, 할아버지, 해쳐, 형부01(兄夫), 형수님

ㄴ. 대명사: 거시기, 머, 무어01, 뭐, 어디01

ㄷ. 관형사: 까짓01

ㄹ. 부사: 가동가동, 가만, 구구01, 그러게, 꾸꾸, 바로02, 아무리, 아차01, 앙02, 어찌면, 어쩔, 어흥, 얼싸둥둥, 와02, 와와, 왕배야덕배야, 왜02, 으아, 으악, 쫓, 쫓쫓, 참01, 참말, 카01, 커01

(12)에서처럼 『표준』에서는 명사 118개, 대명사 5개, 관형사 1개, 부사 25개로 총 149개 표제어가 감탄사와 품사 통용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3.2. 품사 통용의 감탄사 처리에 대한 제언

화용론적 층위에서 다루어야 할 감탄사를 이처럼 통사론적 층위에서 품

8) ‘아이스케키’는 감탄사와 명사로 처리되어 있는데, 명사일 경우에는 ‘아이스케이크’가 표준어로 되어 있다. 그때의 ‘아이스케이크’는 명사로만 처리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아이스케키’ 항목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사의 하나로 분류하게 되면, 통사론적 층위와 화용론적 층위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상의 논의에서 보듯이 문제가 되는 감탄사, 특히 여러 품사로 통용되는 감탄사를 처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한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개괄적인 결론을 말하면, 기존의 감탄사들을 (13)처럼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13) 기존 감탄사의 품사 처리에 대한 제언

- ㄱ. 부사: 성분 부사(의성어, 의태어), 양태 부사
- ㄴ. 문장: 완전한 문장(생략), 소형문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표준』에서의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본다.

(14) 도리도리 [I] ㄹ 어린이에게 도리질을 하라는 뜻으로 내는 소리.

[III] ㄹ 어린이가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동작.

(15) 가동가동 [I] ㄹ 어린이의 겨드랑이를 치켜들고 올렸다 내렸다 하며 어를 때에, 아이가 자꾸 다리를 오그렸다 폈다 하는 모양.

[III] ㄹ 어린이의 겨드랑이를 치켜들고 올렸다 내렸다 하며 어를 때 하는 소리.

(16) 거시기 [I] ㄹ 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 곤란한 사람 또는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

[III] ㄹ 하려는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가 거북할 때 쓰는 군소리.

(17) 까짓01 [I] ㄹ 별것 아닌, 또는 하찮은.

[III] ㄹ 별것 아니라는 뜻으로, 무엇을 포기하거나 용기를 낼 때 하는 말.

(14~17)의 예에서 보듯이, 품사는 달라도 그 의미는 큰 차이가 없다. 먼저 ‘도리도리’와 ‘가동가동’은 모두 모양이나 동작을 나타내는 의미이지만 ‘도리

도리’는 명사, ‘가동가동’은 부사로 다르게 처리한 점은 의문을 품게 한다. ‘도리도리’와 ‘가동가동’은 움직이는 모습과 소리를 흉내 낸 말이므로 의성어와 의태어(부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거시기’는 대명사로서, 그것이 특정 상황에서 그러한 의미로 쓰인 것이 감탄사의 의미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대명사로만 처리하고, 그것이 특정 상황에서 발화될 때 감탄사로서의 의미가 나타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까짓01’도 ‘거시기’와 같은 맥락에서 관형사로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18) 가만[1] ㉠ ① 움직이지 않거나 아무 말 없이. ② 어떤 대책을 세우거나 손을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③ 마음을 가다듬어 꼼꼼히.
④ 말없이 찬찬히.
[III] ㉡ 남의 말이나 행동을 막을 때 쓰는 말.

‘가만’의 경우는 위와 다른데, 감탄사로서의 의미는 부사로서의 첫 번째 의미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즉, 특정한 상황에 그렇게 있거나 하도록 명령을 할 때 이러한 의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가만’은 본래 부사로서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던 것이, 특정 상황에 쓰이게 되면서 본래의 어휘적 의미가 약화되어 화자의 의도나 명령 같은 의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만’은 부사로만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가만’의 용례로 제시된 ‘가만, 저게 무슨 소리지? / 가만, 내 말 좀 들어 봐.’에서 알 수 있듯이, ‘가만’은 ‘가만(히) 있어 봐. / 잠깐 기다려 봐.’ 등의 의미를 나타내고, ‘가만.’으로만 발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문장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특징은 아래의 ‘바로02’와 유사해 보인다.

- (19) 바로02 ㉠ ① 비뚤어지거나 굽은 데가 없이 곧게. ② 거짓이나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③ 사리나 원리, 원칙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④ 도리, 법식, 규정, 규격 따위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⑤ 시간적인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곧. ⑥ 다른 것이나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특정의 대상을 집어서 가리키는 말.
 [한글] 『군사』 제식 훈련에서, 본디의 자세로 돌아가라는 구령.
 또는 그 구령에 따라 행하는 동작.

‘바로02’는 주로 군사 용어로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사용할 때 감탄사나 명사로 처리되었는데,⁹⁾ 부사로서의 첫째 의미와 같이 특정한 모습이나 상태를 취하도록 명령할 때 쓰인다. 그러므로 ‘바로02’ 역시 통사론적인 층위에서는 명사와 부사로 처리하고, 그것이 특정 상황에서 쓰일 때 기존의 감탄사 의미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02’는 이 자체로 다른 문장 성분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예를 살펴보자.

(20) 뒤로돌아가 [한글] 『군사』 제식 훈련에서, 가던 방향에서 뒤로돌아 같은 자세로 가라는 구령. 또는 그 구령에 따라 행하는 동작.
 걸어가는 상태에서 몸을 오른쪽으로 180도 돌려 오던 방향으로 나아간다.

‘뒤로돌아가’는 군사 용어로 완전히 굳어져서 쓰인다는 점에서 한 단어로 처리한 듯하다. 즉, 본래는 하나의 완전한 문장으로서 명령문으로 쓰였던 것이 특정 상황에서만 고정되어 쓰이는 표현이 되었다는 점에서 한 단어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뒤로돌아가’는 그 내부 구조로 볼 때, 분명히 문장 성분의 연속체라는 점에서 하나의 문장이다. 그리고 한 단어로 본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본래 문장일 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군사 훈련이라는 특정 상황에서만 굳어져서 쓰인다는 이유만으로 통사론적 층위에서 이들을 모두 감탄사라는 품사로 처리하는 것은 곤란하다.

9) 『표준』에서는 군사 용어로 쓰이는 말들을 명사와 감탄사로 통용되는 것으로 처리한다.

한편, ‘뒤로돌아가’가 ‘바로02’와 다른 점은 ‘바로02’는 완전한 문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21)의 예들을 통해 살펴보자.

- (21) ㄱ. 예비 ㉠아이들에게 무서운 가상의 존재나 물건.
 ㉠아이들에게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무서운
 것이라는 뜻으로 내는 소리.
 ㄴ. 까짓것 ㉠별것 아닌 것.
 ㉠별것 아니라는 뜻으로, 무엇을 포기하거나 용기를 낼
 때 하는 말.
 ㄷ. 명군 ㉠장기에서, 장군을 받아 막는 수.
 ㉠장기에서, 장군을 받아 막으려고 말을 놓을 때 하는 말.

이들을 발화의 단위로 본다면, 완전한 문장으로 보기 어렵다. 만약 완전한 문장이라고 한다면, 특정 문장 성분들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들은 생략된 성분을 상징하기가 곤란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아래의 예들과 마찬가지로의 특성을 보인다.

- (22) ㄱ. 그러게 ㉠자신의 말이 옳았음을 강조할 때 쓰는 말.
 ㉠상대편의 말에 찬성하는 뜻을 나타낼 때 쓰는 말.
 ㄴ. 지화자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이 평안한 시대에 부르는 노래.
 또는 그 노랫소리.
 ㉠① 흥을 돋우기 위하여 노래나 춤의 곡조에 맞추어 내는 소리. ② 율놀이에서 모를 치거나 활쏘기에서 과녁을 맞혔을 때, 잘한다는 뜻으로 외치는 소리. 특이한 곡조로 ‘지화자’를 네 번 부른다.
 ㄷ. 오아 ㉠젓먹이가 크게 우는 소리.
 ㉠감탄하여 외치는 소리.

이처럼 (19), (21), (22)는 특정 상황에서 발화될 경우에는 문장으로 기능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들은 문장에서 특정한 문장 성분들이 생략된 것이 아니라 이들 자체가 하나의 문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므로, 소형문(minor sentence)¹⁰⁾으로 처리할 수 있다.

덧붙여, (22)의 예들은 품사에 따른 뜻풀이가 서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21)과 다르다. (22ㄱ)에 있는 ‘그러게’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23) ㄱ. 그러게 내가 뭐랬어? / 그러게 내 말을 듣지 그랬어. / 그러게 그곳엔 가지 말랬잖아.

ㄴ. “그 친구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군.” “그러게요.” / “어쨌 이런 낡아 빠진 아파트 한 채를 사 줄 아버지 같은 물주도 아직 장만 못 했느냐? 실망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게’가 부사로 쓰일 때에는 (23ㄱ)에서처럼 문장 성분으로만 쓰이지만,¹¹⁾ 감탄사로 쓰일 때에는 (23ㄴ)에서처럼 독립된 하나의 발화로 쓰일 수 있다. 이는 감탄사로 처리된 ‘그러게’의 의미가 특정 상황의 발화에서 쓰일 때 나타나는데, 본래 부사로서의 의미에서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즉, 선행 발화의 내용에 대해 화자가 옳다고 찬성하는 의미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22ㄴ)의 ‘지화자’는 뜻풀이에서 보듯이, 감탄사로서의 의미는 서로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 중 ②는 특정한 상황에서 발화되어야 그 의미가 나타난다. 그리고 (22ㄷ)의 ‘오야’는 부사와 감탄사일 때의 뜻풀이가 서로 다르지만, 둘 다 소리를 흉내 낸 단어라는 점에서는 공통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모두

10) 소형문의 성립에 대해서는 장소원(1994:265~268)에서, 그 구조에 대해서는 장소원(1994:268~281)에서 다루었는데, 감탄사 구성 또한 소형문으로 처리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민현식(1999:220~222)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독립성 단어문(소형문)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신지연(2001:245~247)에서는 국어학사의 측면에서 감탄사를 하나의 문장으로 파악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의미적인 공통성 없이, 단지 독립성만을 기준으로 한 기존의 감탄사 범주 설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11)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문장 성분이라기보다는 지시어가 접속어로 쓰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사인 ‘그러게’의 의미는 어떤 명제가 전제되어 있어야 그것에 대한 화자 자신의 말이 옳다는 의미가 성립할 수 있게 된다.

(25) 기존 품사 통용의 감탄사 재분류

ㄱ. 부사로 볼 수 있는 것

- ㉠ 의성어: 고수레, 구구, 꾸꾸, 나무아미타불, 니나노, 쉬02, 쉬야, 아차, 앙02, 어흥, 얼싸등등, 와02, 와와, 왕배야덕배야, 잘코사니, 지화자, 쭈쭈, 쫓, 카01
- ㉡ 의태어: 가동가동, 걸음마, 곤지곤지, 도리도리, 부라부라, 죄암죄암, 줍줍, 쥐엄쥐엄, 짹짹짜짜공
- ㉢ 양태 부사: 거시기, 어찌면, 어쩔, 와02, 와와, 으아, 으악, 정말01, 참01, 참말

ㄴ. 명사로 볼 수 있는 것: 고모부, 고모할머니, 고모할아버지, 빙모님, 외숙부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작은올케, 작은할머니, 작은할아버지, 장모님, 장인어른, 질부(姪婦), 큰아버지, 큰어머니, 큰언니, 큰오빠, 큰올케, 큰할머니, 큰할아버지, 큰형, 할머니, 할머님, 할아버님, 할아버지, 형부01(兄夫), 형수님

ㄷ. 문장으로 볼 수 있는 것

- ㉠ 완전한 문장: 거총, 걸어총, 검사총, 경례, 기립, 기준, 꽃아칼, 뒤로돌아, 뒤로돌아가, 뛰어가, 모여, 무릎싸, 무릎앉아, 바른 걸음으로가, 반걸음으로가, 받들어총, 번호02, 서04, 서서싸, 세워총, 쉬어, 쏘아, 싸02, 앉아, 앉아싸, 앞에총, 앞으로가, 앞으로나란히, 어깨총, 옆드려뻗쳐, 옆드려싸, 열중쉬어, 우로나란히, 우로봐, 우로어깨총, 우향앞으로가, 우향우, 일어서, 제 자리에서, 좌로어깨총, 좌향앞으로가, 좌향좌, 주목03(注目), 지어총, 차려, 차렸, 차렸총, 착석, 편히쉬어, 편히앉아, 해쳐
- ㉡ 소형문: 가만, 그러게, 까짓, 까짓것, 니나노, 만세04, 머, 명군, 무어01, 뭐, 바로02, 새아가, 싸구려, 아가, 아무리, 아이스케끼, 아차, 안녕, 액션(action), 와02, 와와, 어디01, 어부바, 예비, 오버(over), 왜02, 유유03(唯唯), 응가, 장군05(將軍), 정말01, 참01, 컷(cut)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표준』에 감탄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명사, 대명사, 관형사, 부사로도 쓰이는 품사 통용의 감탄사를 대상으로 하여 그 특성과 처리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국어에서 통사론적인 문법 범주로 감탄사라는 품사를 설정함으로써 통사론적인 단위와 화용론적인 단위가 뒤섞여 혼선이 빚어졌음을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사론적 단위와 화용론적 단위를 구별하여 품사를 설정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그 내용은 통사론적 단위의 관점에서는 기존의 감탄사라는 품사를 명사, 부사 등의 품사로 처리하여 감탄사로는 설정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기존에 감탄사로 설정되어 있는 것들의 목록과 뜻풀이, 용례를 통해, 그것이 하나의 문장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문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그 기능에 따라 완전한 문장이나 소형문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보았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0), 『문법』, (주)두산, 90-111.
- 교육과학기술부(2010), 『교사용 지도서 문법』, (주)두산, 123-147.
- 김문기(2010), 「감탄사의 문법 범주에 대한 연구」, 『동남어문논집』 제30집, 동남어문학회, 5-24.
- 김태엽(1996), 「국어 독립어의 문법성」, 『언어학』 제18호, 한국언어학회, 77-100.
- 나찬연(2009), 『현대 국어 문법의 이해』, 월인, 281-289, 295-300, 317-337, 349-353, 399-422.
- 민현식(1999), 『국어 문법 연구』, 역락, 217-222.
- 서태룡(1999ㄱ), 「국어 감탄사에 대하여」, 『동악어문논집』 34집, 동악어문학회, 7-35.
- 서태룡(1999ㄴ), 「감탄사의 담화 기능과 범주」, 『동악어문논집』 35집, 동악어문학회, 21-49.
- 신지연(2001), 「감탄사의 의미 구조」, 『한국어 의미학』 8, 한국어 의미학회, 241-258.
- 이한규(1996), 「한국어 담화 표지어 ‘그래’의 의미 연구」, 『담화와 인지』 3, 담화인지언어학회, 1-24.
- 이한규(1997), 「한국어 담화 표지어 ‘왜」, 『담화와 인지』 4-1, 담화인지언어학회, 1-19.
- 임규홍(1996), 「국어 담화 표지 ‘인자’에 대한 연구」, 『담화와 인지』 2, 담화인지언어학회, 1-18.
- 임유중(1999), 「독립언과 수식언의 구분 체계」, 『한민족문화연구』 5, 한민족문화학회, 213-234.
- 장소원(1994), 「현대 국어의 소형발화 연구」, 『텍스트언어학』 2,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61-283.
- 전영옥(2002), 「한국어 담화 표지의 특징 연구」, 『화법연구』 4, 한국화법학회, 113-141.
- 전영옥(2009), 「말뭉치를 바탕으로 한 한국어 감탄사 연구」, 『텍스트언어학』 27,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45-271.
- 허재영(2001), 「감탄사 발달사」, 『한국어 의미학』 9, 한국어 의미학회, 67-95.
- 황병순(2010), 「담화 표지 연구에 드러난 몇 가지 의문」, 『배달말』 47, 배달말학회, 115-132.

김문기
경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51) 663-4218
kimmg5058@ks.ac.kr

접수 일자 : 2011. 2. 27.
게재 결정 : 2011. 4. 15.

〈Abstract〉

A study on efficient methods of conversional exclamation in Korean

Kim Mun-Gi(Kyungsung Univ.)

In this paper I examine the exclamations which are included in 『표준국어대사전』, especially conversion of parts of speech. To consider a question in its all aspect, I extract all exclamations and those of concept and examples in this dictionary. So I examine the validity in categorizing parts of speech syntactically on the exclamations in Korean.

Through this work, I discuss that we establish the exclamation as a grammatical category in Korean is valid or not. Also I think this treatment of exclamations in this dictionary caused us to confuse in Korean grammar, especially why they didn't be divided into syntactic and pragmatic units. That is, Korean words has been traditionally established exclamations as a words syntactically. But I think exclamations belong to pragmatic category not syntactic category, existing classification of words is inappropriate in Korean.

I suggest that exclamations are treated as a grammatical category of pragmatic layer not syntactic layer, so that existing exclamations classified as nouns or adverbs but exclamations. And also at the view of this point, existing exclamations belong to full sentence or minor sentence.

- * key words : exclamation, dictionary, grammatical category, classification of parts of speech, conversion of parts of speech, syntactic unit, pragmatic unit, layer, concept of word, minor sentence